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6년도 표어 ◎

교회, 백성의 위로자(사40:1)

◎ 행동지침 ◎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이 중 윤 †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여호수아서 강해

평화를 위하여 (여호수아 22:1-34)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진리 편에서 용감한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도 용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만 주장했다면 그들은 즉시 칼을 들고 쫓아가 형제들을 죽이고 오해로 인해 크게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열린 마음으로 대화함으로써 비극을 피하고 오해를 풀 수 있었습니다.

직업군인이 아닌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 즉시 군대를 해산시키고 귀환 조치했습니다. 모두 기업의 땅으로 보내되 보수를 주어 보냈고 명예도 안겨주었습니다.

1. 평안할 때에도

여호수아서 후반부의 주제는 전쟁 때에 하나님을 알고 섬기듯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혁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원수를 멸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7년간 매우 공격적이고 정복적이었습니다. 야간의 범죄로 아이 성에서 패전했고 기브온에게 속아 동맹을 맺기도 했으나 7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 신실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과업을 잘 완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겼으나 평화를 잃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지 못하고 이방인처럼 행할 때 하나님의 손이 무섭게 나타난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 그 땅에 머물기 원했던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나보내며 여호수아는 다음의 세 가지를 강조하며 특별 설교를 했습니다.

첫째, 그들이 모세가 명한 것과 여호수아가 명한 것을 다 지켰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2:3절)

둘째, 약속하신 땅과 거기서 평화를 누릴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요 의 징벌을 받겠다고 동의했습니다(22-29절).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같은 설교에 감정적 표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7년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 하며 피로 맺은 동맹군과 이별하는 순간은 감동 어린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요단 강 동편으로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를 보내는 여호수아의 눈시울은 뜨거웠을 것입니다.

2. 요단 강가에 세워진 단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가나안 땅 요단 강가에 이르자 거기에 큰 단을 쌓았습니다(10절).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려 갔습니다. 그들이 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 여호수아의 감동적인 고별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긴 전쟁으로 지쳤으며 평화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단 동편으로 간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잘못된 제단을 쌓았다는 말을 듣자 해체했던 군대를 다시 조직하고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형제요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싫어했고 동쪽으로 간 형제들을 사랑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일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재무장 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질투였던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들은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진리의 영역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이 적대 행위를 하였다면 형제라도 전쟁을 하여 이를 막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섭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용납하면 안 될 것입니다.

3.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전쟁은 즉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님의 큰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동편으로 간 족속들에게 진군하기 전 먼저 상황을 조사하기로 하고 대표군을 파송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경외심과 형제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었습니다.

(1) 이스라엘의 남은 지파에서 파송된 대표들은 동으로 간 이들의 주관심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냈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관점에서만 어떤 일을 판단함으로써 중요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대표단은 각 지파에서 나온 10인으로 구성하고 제사장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휘하에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형제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배신한 것인지 아니면 신앙인지를 조사했습니다.

(2) 서방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린 형제들을 찾기 위해 어떤 대가라도 치를 의지가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을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제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단을 쌓은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벌주시기를 빌었습니다. 이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자기들을 공격하는 이들의 비난에는 동의하지 않으나 그들 말처럼 그것이 죄라면 하나님

4. 아름다운 끝맺음

요단 동쪽으로 간 지파들은 그들이 쌓은 제단의 목적이 다른 신이나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설명하고 서방에 있는 이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섬길 것을 다시 약속했습니다.

그들이 쌓은 제단은 실로에 있는 제단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기능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 두 그룹 사이에 서로 다른 이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름다운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경배하는 것과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진리 편에서 용감한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도 용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만 주장했다면 그들은 즉시 칼을 들고 쫓아가 형제들을 죽이고 오해로 인해 크게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열린 마음으로 대화함으로써 비극을 피하고 오해를 풀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패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성품을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을 조화시킨 삶을 살므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케이بل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BS(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HU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국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목회자 세미나 · 성경대학 · 열린프로그램 종강

30학기 목회자세미나 10월23일(월) 종강

제30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가 내일(23일) 10주간의 과정을 마치고 수료식을 갖는다. 이번 학기를 마친 분은 총 378명으로 알려졌다.

한편 십년 연속 수강을 하여 10 Years Round Table Member가 되는 영예를 얻는 목회자가 18명이다. 한국교회 갱신연구원(원장: 조정식 장로)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번 30학기 목회자 세미나에 등록한 목회자들은 632명이며 92학번 39명을 비롯하여 한 번 등록한 목회자들로 우리 세미나에 계속 참여하는 이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교단별 통계는 장로교가 64%로 가장 많았고 그

외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등 모든 교파 목회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9%, 경기 36%, 인천,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전남 순으로 밝혀졌다.

한편 교회 내 성도들의 영적 수준을 높이는 성경대학 수료자가 6과목 총 164명으로 보고되었다.

주부대학 5명(4학기 수료), 삼통경로대학 50명, 세계선교대학 26명이 각각 수료한다.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는 서울교회는 날로 양적 부흥과 함께 질적 부흥이 있는 교회로 국내외에 알려져 있다.

전도위원회 모든 회의 평일에 모이기로

주일은 전교인이 전도하는 날

전도위원회(위원장 하영수 장로)는 주일에 온전한 예배와 집중적인 전도를 위해 11월부터 모든 회의(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 임원회)를 주일에 하지 않고 평일에 모이기로 하였다.

전도위원회는 주일에 온 교회가 전도에 주력할 수 있도록 1층 로비에 전도지원 본부를 설치하여 노방전도, 축호전도 등 전도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뒷받침 한다.

제19기 전도학교 수료 · 제20기 전도학교 개강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수료

지난 7월 16일 시작된 제 19기 전도학교 훈련 과정이 은혜 중에 끝나고,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수료식을 갖는다. 이번 학기에는 훈련생 과정 79명, 훈련자 과정 9명, 재훈련 과정 20명이 등록하여 총 108명이 훈련을 받았다.

한편 제20기 전도학교는 10월29일(주일) 오후 2시 903호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전도학교 12주 과정을 시작한다. 너희는 만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

파하라(막 16:15)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은 성도라면 누구나 전도할 수 있다. 20기 전도학교에 많은 성도들의 참여 바란다.(29일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여야만 전도학교에 등록할 수 있다.)

20기 전도학교 수업 일정은 화요일: 10월 31일 - 2007년 1월 16일까지 오전 10시(12주 축호전도 과정), 주일반: 11월 5일 - 2007년 1월 21일까지 오후 1시 30분(12주 노방전도 과정)과정으로 실시된다.

신종건 신태봉 안성현 엄성웅 오홍례 오행숙 왕경애 위성남 윤동수 윤명규 윤종택 윤주현 이강진 이미연 이자혁 이학명 이형희 이혜선 임광호 임낙식 장 덕장명순 장효정 조정옥 주의현 진경옥 진교남 진승근 차명숙 차영도 최양자 최임수 한광마 한옥순 한주찬 허 숙홍순전

<훈련자 과정>

이봉선 김규희 김은노 조정숙 박길희 박 옥 박이선 신금전 이혜경

제19기 전도학교 수료자 명단

<훈련생 과정>

강석조 강윤숙 권은주 권혁우 김미자 김사라 김선이 김성호 김영은 김영정 김원중 김익환 김정임 김지은 김진달 김진환 김진희 김한성 김해영 김형배 나금주 나기태 남영주 노순례 박광식 박미영 박미혜 박정섭 박정순 박형수 박희서 배재송 백영자 서영세 서영희 석상화 성순란 소선자 손현순 송성식 송인수 송혜숙

- 바울의 전도여행지 - 에베소와 두란노 서원

두란노서원



사도 요한은 말년에 에베소에서 유배생활을 하며 이 기간에 신약성서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을 썼다고 전해진다.

현재의 셀주크 지방에 자리한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중 개척한 일곱 교회 중의 하나로, 계시록에서는 첫사랑을 잃은 교회로 묘사된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에베소 교회에 써 보낸 편지가 오늘날 신약성서의 에베소서이다.

에베소는 고대 이오니아 지방 상업무역의 중심지로, 사치와 환락의 도시였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유명한 카이사르 시저와 클레오파트라가 이곳에 자주 들러 향수와 화장품 등을 쇼핑해 갔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가로등을 밝혔다는 이 도시는 대리석으로 만든 기둥과 길들이 오늘날에도 견재해서 순례자들도 마치 오늘날의 도심처럼 걷는 것과 같이 그 옛날 에베소인들의 거리를 활보할 수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고대 도시의 지하로 하수인들이 거의 완벽한 설계를 자랑하며 거미줄처럼 뻗어 있다. 고대의 도시 전체가 이처럼 거의 완벽하게 남아 있는 곳은 폼페이와 이곳 뿐이라고 알려져 있다.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은 에베소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셀서스, 켈서스, 퀘수스로도 불리우며, 1세기에 벌써 12000권의 양피지와 파피루스 책을 보관했던 고대 로마 최대의 도서관이었다.

습기와 해충으로부터 자료를 보관하기 위해 환풍이 잘 되도록 높은 천정을 설계했다고 전해지는 이 도서관은 현재 건물의 정면이 거의 완벽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다. 두란노 서원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강론했던 장소(행 19)로, 이곳에 올려 퍼졌던 복음을 순례자들은 다시금 마음으로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나소정(편집부)

베드로 선교회 · 비비 전도회 연합 농촌전도

10월28일(토) 오전 6시 30분 경북 안동 방잠교회로

베드로 선교회(회장 예완식 집사)와 비비 전도회(회장 정미연 집사)는 사명자 대회 기간 중인 10월28일(토) 경북 안동 방잠교회로 연합 농촌전도를 나선다.

농촌전도대는 28일(토) 하루 동안 방잠교회에서

현지교회를 도와 이미용 선교와 의료선교 노방전도 등을 실시하여 현지교회에 큰 활력을 불어넣게 된다.

연합 농촌 전도팀은 10월28일(토) 오전 6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한다.

크리스찬 사랑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Q: 남편과 저는 모태신앙인이고 중학교에 다니는 사내 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둘 다 뜨겁지는 않아도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교회를 등지고 세상에 빠져 말썽을 부리는 것에 더 어이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교회 학교도 잘 다녔고, 저도 신앙 교육을 시킨다고 나름대로 열심을 내었습니다. 가정예배도 드리고, 성경 암송도 시키고, 교회학교 행사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아이는 비뚤어지고 있었습니다. 교

크리스찬 사랑방은 성도여러분의 상담 코너입니다. 신앙문제, 자녀 양육 등 기독교적인 고민을 상담받기 원하시는 성도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회에 흥미를 잃고, 학교에서도 자주 말썽을 부리고 사고를 치며 끼리끼리 몰려다니면서 추축권대 동네 아이들도 괴롭히는 눈치입니다.

처음에는 성적 떨어지는 것 때문에 속이 상했는데 이제는 성적을 커녕 학교생활만 정상적으로 해줘도 감사할 지경입니다. 교회는 억지로라도 끌고나가야 할까요? 주일마다 전쟁입니다. 남편은 당분간 내버려 두라고 하는데 저는 아이가 교회에 안 나가는 날에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초조합니다.

성도의 가장 큰 무기는 기도

A: 정말 힘든 영적 전쟁을 하고 계신 성도님께 먼저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플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성도의 제일 큰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기도로 방아를 위대한 신학자로 성자로 키워냈습니다.

청소년 시절 많은 이들이 비뚤어진 사회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고 배울 것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들의 가장 좋은 모델은 아무래도 부모일 것입니다. 자녀에게 훈계하시지전 부모가 삶의 모범과 감동을 자녀에게 주는 것이 최상의 교육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귀택의 자녀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청소년입니다.

현재의 학습이나 행동으로 성급한 판단을 하기보다 미래 가능성을 보면서 칭찬과 격려를 더 많이 그리고 자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칭찬을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 전 부모님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보이면서 함께 고민하고 대화를 통해 나쁜 습관을 하나씩 고치겠다는 의지가 생기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가 삶의 모범과 감동을 자녀에게 -

주님이 세우신 비전을 귀택의 자녀가 찾을 수 있도록 담당 목사님과 의논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직하고 깨끗합니다. 학생이 교회 출석까지 흥미를 잃은 것은 교회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주님이 세우신 비전을 귀택의 자녀가 찾을 수 있도록 담당 목사님과 의논해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Pilgrims' Vision Tour를 준비하며

박지연 (대학부)

CBS 성지순례 홍보가 1층 복도에 처음 게시되었을 때 성지순례에 참여하리라 생각치 못했습니다. 순례가 중요한지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고 시간과 금액에 대해서 염두를 낼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다시금 진로를 모색하고 있던 터라 당장 내일이 걱정이었습니다.

게시물을 보면서, 설령 갈 기회가 된다면 바울 선생이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의 모습과 성경적 지식이 바탕이 되어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에 그리고 저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면 좋겠다는 소원함을 하나님이 받으셨나 봅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학교와 직장으로 갈 상황이 되지 못하는데 저의 경우 직장을 쉬었기 때문에 오히려 갈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시 직장을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물리치료사라는 좋은 직업을 허락해 주셔서 재취업은 그리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이 몸을 많이 혹사하는 것이어서 지혜 없이 일하다 보면 몸이 상하기 일쑤입니다.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번민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아픈 곳이 낫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통증도 줄여주시고, 나의 몸을 보호하면서 일 할 수 있는 지혜 또한 주셨습니다. 순간 순간 암담한 생각이 들때도 주님은 나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혼란한 마음들을 위로와 확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2주간의 성지순례를 하는 동안 저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내 영혼 깊이를 느끼고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삶에 지친 나의 영육을 말갈게 씻고 돌아오기 원합니다.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느끼고 안전하게 돌아올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땅을 밟으면서 주님의 복음을 기도로 심겠습니다.

사명자의 기도-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조건 없이 주신 사랑을...

이근대(청년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셔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복이 너무도 많지만 감사하지 못했고 주님을 위해 살지 못했던 불충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 합니다. 우리 마음에 정결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 들고 저들 앞에 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사명자의 길을 걷게 하시고 백성의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절망 중에 있는 이웃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참된 소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저희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께서 조건 없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모두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르고 물질만능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영혼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고 목적도 없이 오직 자신을 믿으며 살아가는 영혼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친지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우리의 모두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할 때에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늘어나며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사람의 영혼이라도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길이라면 무엇이든지 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나 개인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는 중등부

오늘 저녁 6시 30분 만나홀

우리교회 중등부는 '함께 지어져 가는 중등부'라는 주제로 우리 서울교회에 등록된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함께 모여 하나되는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이번 행사는 그 동안 교회에 잘 출석하지 못했던 친구들도 찾아 함께 모이는 만남의 자리로 준비된다.

이번 만남의 시간을 통해 중등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이다.

중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서 함께 지어져가도록 기도한다.

피택 집사 · 권사 시험과 면접

10월26일(목) 오후 7시

10월 26일(목) 오후 7시에 피택집사와 권사 시험이 801호에서 실시된 후 면접이 501호(피택권사), 502호(피택집사)에서 있다.

협동 권사 · 집사 교육 면접

10월27일(금) 오전 10시

협동 권사 집사 교육과 면접이 10월 27일(금) 오전 10시에 501호(협동집사), 502호(협동권사)에서 있다.

강남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제19회 찬양잔치

10월26일(목) 소망교회에서

서울강남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19회 찬양잔치가 우리교회 호산나 찬양대를 비롯한 노회 내 여전도회 찬양대가 출전하여 소망교회당에서 26일(목) 10시부터 시작된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대학입시를 준비하며 힘들게 보냈던 고교시절이 생각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에게 전도를 받아 신앙생활을 시작하였고 고등학교 1,2학년 때는 교회의 중고등부 회장을 맡는 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고교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다 보니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대부분 월요일에 시작되는 시험때문에 늘 적지 않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믿지 않는 부모님은 "그렇게 교회에만 빠져있느라 대학진학을 못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당시 하남시에서 대치동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 먼 거리를 통학하는 것만도 힘든 일이었으나 새벽 첫차를 타고 종로에 있는 학원에서 새벽반 강의를 듣고 등교하였고, 힘겹게 입시준비에 매달렸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늘 기도하였지만 교회에 다니느라 공부에 소홀하여 대학에 떨어졌다는 눈총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열

심히 공부하였습니다.

뒤돌아보면 교회와 학교의 합창단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원하는 학과에 진학을 했으니 후회 없는 고교생활을 한 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 나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만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공부만 해서 대학에 진학하였다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교만함에 빠져 오늘까지 살아왔을 지 모릅니다.

천국시민양성 -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에게..

꿈꾸는 자가 됩시다

손영호 집사(교구)

중요한 것은 합격과 불합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꿈꾸는 자 오해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을 갖고 기도하며 노력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경암송대회를 앞두고..

성경 암송, 충만한 은혜

김소연(중등부)

저는 매년 성경암송대회에 참가해 왔고 항상 좋은 성적으로 입상을 해 주위의 칭찬을 받곤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매년 성경암송대회에서 좋은 성적과 칭찬을 받게 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 보다 더욱 감사한 것은 매년 성경암송대회에 참가하고 그 횟수가 늘어나면서 저는 성경 암송을 통해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고, 말씀의 능력을 공급받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암송을 통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뢰하게 되었고 유혹이 닥쳐올 때마다 말씀으로 대적해서 승리 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성경암송대회에도 많은 분들과 함께 성경을 암송하는데서 오는 축복과 꿀송이 보다도 더 단 말씀의 맛을 함께 느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등정

■ 이종운 목사는 24일(화) 총회 주기도 사도신경 번역위원들을 초청, 총회통과 감사예배를 드린다. 27일(금)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4차 정기논문 발표회 개최예배 설교를 한다.

■ 10교구 류중관 집사, 진선사 권사 - 강동구 암사동 선사현 대아파트 104동 1302호

■ 졸업연주회 : 이순재 선생(시온찬양대, 영어예배부 반주자) 10월23일(월) 오후 7시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초동 캠퍼스4층 KNUA 홀

■ 주간식당 봉사 : 에스더전도회(10월22일) 한나전도회(10월29일)

■ 금주의 식사 · 떡 제공 : 정경월 권사, 김혜아 집사, 김훈 집사 (김사무원 장로 정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20분
	III 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006 사명자 대회 은혜롭게 진행되어 좋은 열매 풍성히 맺도록
2. Pilgrims' Vision Trip(성지순례단) 은혜롭게 준비되도록
3. 피택자들의 시험과 면접을 통해 준비된 일꾼이 되도록
4. 개정된 사학법과 전시작전권 단독행사 요구 철회되도록

■ 교회외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